운수 좋은날 현진건 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 듯하더니 눈은 아니 오고 얼다가 만 비가 추 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이날이야말로 동소문 안에서 인력거꾼 노릇을 하는 김첨지에게는 오래간만 에도 닥친 운수 좋은 날이었다 문안에 거기도 문밖은 아니지만 들어간답 . 學校 ) ( ) 시는 앞집 마마님을 전찻길까지 모셔다 드린 것을 비롯으로 행여나 손님이 있을까 하고 정류장에서 어정어정하며 내리는 사람 하나하나에게 거의 비는 듯한 눈결을 보내고 있다가 마침내 교원인 듯한 양복쟁이를 동광학교(東光 까지 태워다 주기로 되었다 . , 첫 번에 삼십전 둘째번에오십전 아침댓바람에그리흉치않은일이 . 었다 그야말로 재수가 옴붙어서 근 열흘 동안 돈 구경도 못한 김첨지는 십 , 전짜리 백동화 서 푼 또는 다섯 푼이 찰깍 하고 손바닥에 떨어질 제 거의 . 눈물을 흘릴 만큼 기뻤었다 더구나 이날 이때에 이 팔십 전이라는 돈이 그 . 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몰랐다 컬컬한 목에 모주 한 잔도 적실 수 있거니와 그보다도 앓는 아내에게 설렁탕 한 그릇도 사다 줄 수 있음이다. 그의 아내가 기침으로 쿨룩거리기는 벌써 달포가 넘었다 조밥도 굶기를 . 먹다시피 하는 형편이니 물론 약 한 첩 써본 일이 없다 구태여 쓰려면 못 . 쓸 바도 아니로되 그는 병이란 놈에게 약을 주어 보내면 재미를 붙여서 자 꾸 온다는 자기의 신조 에어디까지충실하였다 따라서의사에게보 ( 信條 ) . 인 적이 없으니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으되 반듯이 누워 가지고 일어나기 는 새로 모로도 못 눕는 걸 보면 중증은 중증인 듯 병이이대도록 심해지 . 기는 열흘전에 조밥을 먹고 체한 때문이다 그때도 김첨지가 오래간만에 돈 . 을 얻어서 좁쌀 한 되와 십 전짜리 나무 한 단을 사다 주었더니 김첨지의 말에 의지하면 그 오라질 년이 천방지축으로 냄비에 대고 끓였다 마음은 . 급하고 불길은 달지 않아 채 익지도 않은 것을 그 오라질년이 숟가락은 고 만두고 손으로 움켜서 두 뺨에 주먹덩이 같은 혹이 불거지도록 누가 빼앗을 듯이 처박질하더니만 그날 저녁부터 가슴이 땡긴다 배가 켕긴다고 눈을 흡 , . 뜨고 지랄병을 하였다 그때 김첨지는 열화와 같이 성을 내며 “ , , , 에이 오라질년 조랑복은 할 수가 없어 못먹어병 먹어서병 어쩌 , ! 란 말이야 왜눈을바루뜨지못해 !” , ! 하고 앓는 이의 뺨을 한 번 후려갈겼다 흡뜬 눈은 조금 바루어졌건만 이슬 . 이맺히었다김첨지의눈시울도뜨끈뜨끈하였다. . 이환자가그러고도먹는데는물리지않았다사흘전부터설렁탕국물이. 마시고싶다고남편을졸랐다. 이런오라질년조밥도못먹는년이설렁탕은또처먹고지랄병을하“ ! . 게.” 라고야단을쳐보았건만못사주는마음이시원치는않았다, , . 인제설렁탕을사줄수도있다앓는어미곁에서배고파보채는개똥이. 세살먹이에게죽을사줄수도있다팔십전을손에쥔김첨지의마음( ) 은푼푼하였다. 그러나그의행운은그걸로그치지않았다땀과빗물이섞여흐르는목덜. 미를기름주머니가다된왜목수건으로닦으며그학교문을돌아나올때, 였다뒤에서인력거하고부르는소리가난다자기를불러멈춘사. “ !” . 람이그학교학생인줄김첨지는한번보고짐작할수있었다그학생은. 다짜고짜로, 남대문정거장까지얼마요“ .” 라고물었다아마도그학교기숙사에있는이로동기방학을이용하여귀. 향하려함이리라오늘가기로작정은하였건만비는오고짐은있고해서. , 어찌할줄모르다가마침김첨지를보고뛰어나왔음이리라그렇지않으면. 왜구두를채신지못해서질질끌고비록고구라양복일망정노박이로비, 를맞으며김첨지를뒤쫓아나왔으랴. 남대문정거장까지말씀입니까“ .” 하고김첨지는잠깐주저하였다그는이우중에우장도없이그먼곳을. 철벅거리고가기가싫었음일까처음것둘째것으로고만만족하였음일까? ? 아니다결코아니다이상하게도꼬리를맞물고덤비는이행운앞에조금. 겁이났음이다그리고집을나올제아내의부탁이마음이켕기었다앞. 집마마님한테서부르러왔을제병인은뼈만남은얼굴에유일의샘물같 은유달리크고움푹한눈에애걸하는빛을띄우며, 오늘은나가지말아요제발덕분에집에붙어있어요내가이렇게아“ . . 픈데.” …… 라고모기소리같이중얼거리고숨을걸그렁걸그렁하였다그때에김첨지, . 는대수롭지않은듯이, 아따젠장맞을년별빌어먹을소리를다하네맞붙들고앉았으면누“ , , . 가먹여살릴줄알아.” 하고훌쩍뛰어나오려니까환자는붙잡을듯이팔을내저으며, “ , 나가지 말라도 그래 그러면 일찍이 들어와요 , 하고 목메인 소리가 뒤를 따랐다 . .” 정거장까지 가잔 말을 들은 순간에 경련적으로 떠는 손 유달리 큼직한 눈 울 듯한 아내의 얼굴이 김첨지의 눈앞에 어른어른하였다. “ “ 그래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란 말이요 ?” 하고 학생은 초조한 듯이 인력거꾼의 얼굴을 바라보며 혼자말같이, 인천 차가 열한 점에 있고 그 다음에는 새로 두 점이든가 .” 라고 중얼거린다. “ 일 원 오십 전만 줍시요 .” 이 말이 저도 모를 사이에 불쑥 김첨지의 입에서 떨어졌다 제 입으로 부 . 르고도 스스로 그 엄청난 돈 액수에 놀랐다 한꺼번에 이런 금액을 불러라 . ! 도 본 지가 그얼마만인가 그러자그돈벌용기가병자에 대한 염려를 사 . 르고 말았다 설마 오늘 내로 어떠랴 싶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일 제 . 이의 행운을 곱친 것보다고 오히려 갑절이 많은 이 행운을 놓칠 수 없다 하 였다. “ 일 원 오십 전은 너무 과한데 .” 이런 말을 하며 학생은 고개를 기웃하였다. “ . 아니올시다 잇수로 치면 여기서 거기가 시오 리가 넘는답니다 또 이런 진날은 좀 더 주셔야지요.” “ . 하고 빙글빙글 웃는 차부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기쁨이 넘쳐흘렀다. 그러면 달라는 대로 줄 터이니 빨리 가요 .” 관대한 어린 손님은 이런 말을 남기고 총총히 옷도 입고 짐도 챙기러 갈 데로 갔다. 그 학생을 태우고 나선 김첨지의 다리는 이상하게 거뿐하였다 달음질을 . . 한다느니보다 거의 나는 듯하였다 바퀴도 어떻게 속히 도는지 구른다느니 보다 마치 얼음을 지쳐 나가는 스케이트 모양으로 미끄러져 가는 듯하였다. 언 땅에 비가 내려 미끄럽기도 하였지만. 이윽고 끄는 이의 다리는 무거워졌다 자기 집 가까이 다다른 까닭이다 . . 새삼스러운 염려가 그의 가슴을 눌렀다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내가 이 . “ ” , 렇게 아픈데 이런말이잉잉그의귀에울렸다 그리고병자의 움쑥 들어 . 간 눈이 원망하는 듯이 자기를 노리는 듯하였다 그러자 엉엉 하고 우는 개 . . 똥이의 곡성을 들은 듯싶다 딸국딸국 하고 숨 모으는 소리도 나는 듯싶다 “ , 왜 이리우 기차 놓치겠구먼 .” 하고 탄 이의 초조한 부르짖음이 간신히 그의 귀에 들어왔다 언뜻 깨달으 . . “ , .” 니 김첨지는 인력거를 쥔 채 길 한복판에 엉거주춤 멈춰 있지 않은가. 예 예 , 하고 김첨지는 또다시 달음질하였다 집이 차차 멀어 갈수록 김첨지의 걸 . . 음에는 다시금 신이 나기 시작하였다 다리를 재게 놀려야만 쉴새없이 자기 의 머리에 떠오르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잊을 듯이. 정거장까지 끌어다 주고 그 깜짝 놀란 일 원 오십 전을 정말 제 손에 쥠에 제 말마따나 십리나 되는 길을 비를 맞아 가며 질퍽거리고 온 생각은 아니 하고 거저나 얻은 듯이 고마웠다 졸부나 된 듯이 기뻤다 제 자식뻘밖에 . “ 안 되는 어린 손님에게 몇 번 허리를 굽히며, 안녕히 다녀옵시요 .” 라고 깍듯이 재우쳤다. . 그러나 빈 인력거를 털털거리며 이 우중에 돌아갈 일이 꿈밖이었다 노동 . 으로 하여 흐른 땀이 식어지자 굶주린 창자에서 물 흐르는 옷에서 어슬어 , 슬 한기가 솟아나기 비롯하매 일 원 오십 전이란 돈이 얼마나 괜찮고 괴로 운 것인 줄 절절히 느끼었다 정거장을 떠나는 그의 발길은 힘 하나 없었 . . 다 온몸이 옹송그려지며 당장 그 자리에 엎어져 못 일어날 것 같았다 “ , . 젠장맞을 것 이 비를 맞으며 빈 인력거를 털털거리고 돌아를 간담 이 . 런 빌어먹을 제 할미를 붙을 비가 왜 남의 상판을 딱딱 때려!” 그는 몹시 화증을 내며 누구에게 반항이나 하는 듯이 게걸거렸다 그럴 즈 . 음에 그의 머리엔 또 새로운 광명이 비쳤나니 그것은 이러구 갈 게 아니 ‘ ’ 라 이 근처를 빙빙 돌며 차 오기를 기다리면 또 손님을 태우게 될는지도 몰 라 란생각이었다 오늘운수가 괴상하게도 좋으니까 그런 요행이 또 한번 . . 없으리라고 누가 보증하랴 꼬리를 굴리는 행운이 꼭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 고 내기를 해도 좋을 만한 믿음을 얻게 되었다 그렇다고 정거장 인력거꾼 . 의 등쌀이 무서우니 정거장 앞에 섰을 수는 없었다 그래 그는 이전에도 여 . 러 번 해본 일이라 바로 정거장 앞 전차 정류장에서 조금 떨어지게 사람 다 니는 길과 전찻길 틈에 인력거를 세워 놓고 자기는 그 근처를 빙빙 돌며 형 세를 관망하기로 하였다 얼마 만에 기차는 왔고 수십 명이나 되는 손이 정 . . 류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서 손님을 물색하는 김첨지의 눈엔 양머리 에 뒤축 높은 구두를 신고 망토까지 두른 기생 퇴물인 듯 난봉 여학생인 듯 한 여편네의 모양이 띄었다 그는 슬근슬근 그 여자의 곁으로 다가들었다 . “ , 아씨 인력거 아니 타시랍시요 .” . 그 여학생인지 만지가 한참은 매우 때깔을 빼며 입술을 꼭 다문 채 김첨지 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김첨지는 구걸하는 거지나 무엇같이 연해연방 그 . 의 기색을 살피며, “ , 아씨 정거장 애들보담 아주 싸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댁이 어디신가 요.” . 하고 추근추근하게도 그 여자의 들고 있는 일본식 버들고리짝에 제 손을 대 었다. “ , 왜 이래 남귀치않게 .” 소리를 벽력같이 지르고는 돌아선다 김첨지는 어랍시요 하고 물러섰다 . . . 전차는 왔다 김첨지는 원망스럽게 전차 타는 이를 노리고 있었다 그러나 . ( 豫感 ) . 그의 예감 은틀리지않았다 전차가빡빡하게사람을싣고움직이기 시작하였을 제 타고 남은 손 하나가 있었다 굉장하게 큰 가방을 들고 있는 . . 걸 보면 아마 붐비는 차 안에 짐이 크다 하여 차장에게 밀려 내려온 눈치였 다 김첨지는 대어섰다 . “ . 인력거를 타시랍시요 .” 한동안 값으로 승강이를 하다가 육십 전에 인사동까지 태워다 주기로 하였 다 인력거가 무거워지매 그의 몸은 이상하게도 가벼워졌고 그리고 또 인력 . 거가 가벼워지니 몸은 다시금 무거워졌건만 이번에는 마음조차 초조해 온 다 집의광경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리어 인제 요행을 바랄 여유도 없었다 . 나무 등걸이나 무엇 같고 제 것 같지도 않은 다리를 연해 꾸짖으며 질팡갈 팡 뛰는 수밖에 없었다 저놈의 인력거꾼이 저렇게 술이 취해 가지고 이 진 . , 땅에 어찌 가노 라고 길가는사람이 걱정을 하리만큼 그의 걸음은 황급하 . 였다 흐리고 비 오는 하늘은 어둠침침하게 벌써 황혼에 가까운 듯하다 창 . 경원 앞까지 다다라서야 그는 턱에 닿은 숨을 돌리고 걸음도 늦추잡았다. 한 걸음 두 걸음 집이 가까워 갈수록 그의 마음조차 괴상하게 누그러웠다. 그런데 이 누그러움은 안심에서 오는 게 아니요 자기를 덮친 무서운 불행을 빈틈없이 알게 될 때가 박두한 것을 두리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불 . 행에 다닥치기 전 시간을 얼마쯤이라도 늘이려고 버르적거렸다 기적 . ( 奇蹟 ) 에 가까운 벌이를 하였다는 기쁨을 할 수 있으면 오래 지니고 싶었다 그는 . . 두리번두리번 사면을 살피었다 그 모양은 마치 자기 집 곧불행을 향하 고 달아가는 제 다리를 제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으니 누구든지 나 를 좀 잡아 다고 구해다고하는듯하였다 , . 그럴 즈음에 마침 길가 선술집에서 그의 친구 치삼이가 나온다 그의 우글 . , 우글 살찐 얼굴에 주홍이 덧는 듯 온 턱과 뺨을 시커멓게 구레나룻이 덮였 거늘 노르탱탱한 얼굴이 바짝 말라서 여기저기 고랑이 패고 수염도 있대야 턱밑에만 마치 솔잎 송이를 거꾸로 붙여 놓은 듯한 김첨지의 풍채하고는 기 이한대상을짓고있었다. 여보게김첨지자네문안들어갔다오는모양일세그려돈많이벌었을“ , . 테니한잔빨리게.” 뚱뚱보는말라깽이를보던맡에부르짖었다그목소리는몸집과딴판으로. 연하고싹싹하였다김첨지는이친구를만난게어떻게반가운지몰랐다. . 자기를살려준은인이나무엇같이고맙기도하였다. 자네는벌써한잔한모양일세그려자네도오늘재미가좋아보이“ . .” 하고김첨지는얼굴을펴서웃었다. 아따재미안좋다고술못먹을낸가그런데여보게자네왼몸이어“ , . , 째물독에빠진새앙쥐같은가어서이리들어와말리게. .” 선술집은훈훈하고뜨뜻하였다추어탕을끓이는솥뚜껑을열적마다뭉게. 뭉게떠오르는흰김석쇠에서뻐지짓뻐지짓구워지는너비아니구이며제육 이며간이며콩팥이며북어며빈대떡이너저분하게늘어놓인안주탁자…… 에김첨지는갑자기속이쓰려서견딜수없었다마음대로할양이면거기. 있는모든먹음먹이를모조리깡그리집어삼켜도시원치않았다하되배고 픈이는위선분량많은빈대떡두개를쪼이기도하고추어탕을한그릇 청하였다주린창자는음식맛을보더니더욱더욱비어지며자꾸자꾸들이. 라들이라하였다순식간에두부와미꾸리든국한그릇을그냥물같이. 들이켜고말았다셋째그릇을받아들었을제데우던막걸리곱배기두잔. 이더웠다치삼이와같이마시자원원이비었던속이라찌르를하고창자. 에퍼지며얼굴이화끈하였다눌러곱배기한잔을또마셨다. . 김첨지의눈은벌써개개풀리기시작하였다석쇠에얹힌떡두개를숭. 덩숭덩썰어서볼을불룩거리며또곱배기두잔을부어라하였다. 치삼은의아한듯이김첨지를보며, 여보게또붓다니벌써우리가넉잔씩먹었네돈이사십전일세“ , , .” 라고주의시켰다. 아따이놈아사십전이그리끔찍하냐오늘내가돈을막벌었어참“ , . . 오늘운수가좋았느니.” 그래얼마를벌었단말인가“ .” 삼십원을벌었어삼십원을이런젠장맞을술을왜안부어괜찮“ , ! …… 다괜찮다막먹어도상관이없어오늘돈산더미같이벌었는데, . .” 어이사람취했군그만두세“ , , .” 이놈아그걸먹고취할내냐어서더먹어“ , , .” 하고는치삼의귀를잡아치며취한이는부르짖었다그리고술을붓는열. 다섯 살 됨직한 중대가리에게로 달려들며, 이놈 오라질 놈 왜술을붓지않어 “ , , . .” 라고 야단을 쳤다 중대가리는 희희 웃고 치삼을 보며 문의하는 듯이 눈짓 . 을 하였다 주정꾼이 이 눈치를 알아보고 화를 버럭 내며 “ , 에미를 붙을 이 오라질 놈들 같으니 이놈 내가 돈이 없을 줄 알고 , .” 하자마자 허리춤을 훔칫훔칫하더니 일 원짜리 한 장을 꺼내어 중대가리 앞 에 펄쩍 집어던졌다 그 사품에 몇 푼 은전이 잘그랑 하며 떨어진다 . “ 여보게 돈 떨어졌네 왜 돈을 막 끼얹나 . , .” . 이런 말을 하며 일변 돈을 줍는다 김첨지는 취한 중에도 돈의 거처를 살 “ 피는 듯이 눈을 크게 떠서 땅을 내려다보다가 불시에 제 하는 짓이 너무 더 럽다는 듯이 고개를 소스라치자 더욱 성을 내며, 봐라 봐 이더러운놈들아 내가돈이없나 다리뼉다구를 꺾어 놓을 ! 놈들 같으니.” “ , 하고 치삼의 주워 주는 돈을 받아, 이 원수엣돈 이 육시를 할 돈 ! !” . , 하면서 풀매질을 친다 벽에 맞아 떨어진 돈은 다시 술 끓이는 양푼에 떨어 지며 정당한 매를 맞는다는 듯이 쨍 하고 울었다. 곱배기 두 잔은 또 부어질 겨를도 없이 말려 가고 말았다 김첨지는 입술 . “ 과 수염에 붙은 술을 빨아들이고 나서 매우 만족한 듯이 그 솔잎 송이 수염 을 쓰다듬으며, 또 부어 또부어 , 라고 외쳤다. .” 또 한 잔먹고나서김첨지는 치삼의 어깨를 치며 문득 껄껄 웃는다 그 . . 웃음 소리가 어떻게 컸던지 술집에 있는 이의 눈은 모두 김첨지에게로 몰리 었다 웃는 이는 더욱 웃으며 , “ “ 가지 않았겠나.” 그래서 “ , 여보게 치삼이 내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할까 오늘 손을 태고 정거장에 .” . . 갔다가 그저 오기가 안됐데그려 그래 전차 정류장에서 어름어름하며 손 . 님 하나를 태울 궁리를 하지 않았나 거기 마침 마마님이신지 여학생이신지 ( 요새야 어디 논다니와 아가씨를 구별할 수가 있던가 망토를 잡수시고 비 . ) 를 맞고 서 있겠지 슬근슬근 가까이 가서 인력거 타시랍시요 하고 손가방 을 받으랴니까 내 손을 탁 뿌리치고 홱 돌아서더니만 왜 남을 이렇게 귀 ‘ !’ 찮게 굴어 그소리야말로꾀꼬리소리지 허허 , !” 김첨지는교묘하게도정말꾀꼬리같은소리를내었다모든사람은일시. 에웃었다. 빌어먹을깍쟁이같은년누가저를어쩌나왜남을귀찮게굴어“ , ,‘ !’ 어이구소리가처신도없지허허, .” 웃음소리들은높아졌다그러나그웃음소리들이사라도지기전에김첨. 지는훌쩍훌쩍울기시작하였다. 치삼은어이없이주정뱅이를바라보며, 금방웃고지랄을하더니우는건또무슨일인가“ .” 김첨지는연해코를들이마시며, 우리마누라가죽었다네“ .” 뭐마누라가죽다니언제“ , , ?” 이놈아언제는오늘이지“ , .” 엣기미친놈거짓말말아“ , .” 거짓말은왜참말로죽었어참말로마누라시체를집에뻐들쳐놓“ , , …… 고내가술을먹다니내가죽일놈이야죽일놈이야, , .” 하고김첨지는엉엉소리를내어운다. 치삼은흥이조금깨어지는얼굴로, 원이사람이참말을하나거짓말을하나그러면집으로가세가“ , . , .” 하고우는이의팔을잡아당기었다. 치삼의끄는손을뿌리치더니김첨지는눈물이글썽글썽한눈으로싱그레 웃는다. 죽기는누가죽어“ .” 하고득의가양양. 죽기는왜죽어생때같이살아만있단다그오라질년이밥을죽이지“ , . . 인제나한테속았다.” 하고어린애모양으로손뼉을치며웃는다. 이사람이정말미쳤단말인가나도아주먼네가앓는단말은들었는“ . 데.” 하고치삼이도어느불안을느끼는듯이김첨지에게또돌아가라고권하였 다. 안죽었어안죽었대도그래“ , .” 김첨지는화증을내며확신있게소리를질렀으되그소리엔안죽은것을 믿으려고애쓰는가락이있었다기어이일원어치를채워서곱배기한잔. 씩더먹고나왔다궂은비는의연히추적추적내린다. . 김첨지는 취중에도 설렁탕을 사가지고 집에 다다랐다 집이라 해도 물론 . 셋집이요 또 집 전체를 세든 게 아니라 안과 뚝 떨어진 행랑방 한 간을 빌 려 든 것인데 물을 길어 대고 한 달에 일원씩내는터이다 만일김첨지가 . ( 주기를 띠지 않았던들 한 발을 대문에 들여놓았을 제 그곳을 지배하는 무시 무시한 정적 靜寂 ) .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바다 같은 정적이 다리가 떨렸 으리라 쿨룩거리는 기침 소리도 들을 수 없다 그르렁거리는 숨소리조차 . . 들을 수 없다 다만이무덤같은침묵을깨뜨리는 깨뜨린다느니보다 한 층 더 침묵을 깊게 하고 불길하게 하는 빡빡 하는 그윽한 소리 어린애의 . , 젖 빠는 소리가 날 뿐이다 만일 청각 이예민한이같으면그빡빡 ( , 聽覺 ) 소리는 빨 따름이요 꿀떡꿀떡 하고 젖 넘어가는 소리가 없으니 빈 젖을 빤 다는 것도 짐작할는지 모르리라. 혹은 김첨지도 이 불길한 침묵을 짐작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대 . 문에 들어서자마자 전에 없이, “ , 이 난장맞을 년 남편이 들어오는데 나와 보지도 않아 이 오라질 년 . , .” 이라고 고함을 친 게 수상하다 이 고함이야말로 제 몸을 엄습해 오는 무시 무시한 증을 쫓아 버리려는 허장성세인 까닭이다. 하여간 김첨지는 방문을 왈칵 열었다 구역을 나게 하는 추기 떨어진 . 삿자리 밑에서 나온 먼지내 빨지 않은 기저귀에서 나는 똥내와 오줌내 가지 각색 때가 켜켜이 앉은 옷내 병인의 땀 썩은 내가 섞인 추기가 무딘 김첨지 의 코를 찔렀다. 방 안에 들어서며 설렁탕을 한구석에 놓을 사이도 없이 주정꾼은 목청을 있는 대로 다 내어 호통을 쳤다. “ 지를 못해.” , 이런 오라질 년 주야장천 누워만 있으면 제일이야 남편이 와도 일어나 . 라는 소리와 함께 발길로 누운 이의 다리를 몹시 찼다 그러나 발길에 채이 . 는 건 사람의 살이 아니고 나무등걸과 같은 느낌이 있었다 이때에 빽빽 소 . . 리가 응아 소리로 변하였다 개똥이가 물었던 젖을 빼어 놓고 운다 운대도 . 온 얼굴을 찡그려 붙여서 운다는 표정을 할 뿐이다 응아 소리도 입에서 나 . 는 게 아니고 마치 뱃속에서 나는 듯하였다 울다가 울다가 목도 잠겼고 또 . 울 기운조차 시진한 것 같다. “ 발로 차도 그 보람이 없는 걸 보자 남편은 아내의 머리맡으로 달려들어 그 야말로 까치집 같은 환자의 머리를 꺼들어 흔들며, 이년아 말을 해 말을 입이붙었어 이오라질년 , …… “ ” , ! , !” 으응 이것 봐 아무말이없네 “ , , .” “ ” …… “ , 이년아 죽었단 말이냐 왜 말이 없어 , “ ” …… “ , .” 으응 또대답이 없네 정말죽었나버이 . “ ! .” 이러다가 누운 이의 흰 창을 덮은 위로 치뜬 눈을 알아보자마자, 이 눈깔 이눈깔 왜나를바라보지못하고천장만보느냐 응 ! , . .” 하는 말 끝엔 목이 메였다 그러자 산 사람의 눈에서 떨어진 닭의 똥 같은 눈물이 죽은 이의 뻣뻣한 얼굴을 어룽어룽 적시었다 문득 김첨지는 미친 . 듯이 제 얼굴을 죽은 이의 얼굴에 한데 비비대며 중얼거렸다. “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 , ! 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 …… .”